국내
마감시황

2026.4.9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중동 불안 지속되며 하락

이스라엘, 레바논에 대한 공습 확대

이란 매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보도

주요 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5,778.01pt (-1.61%)	1,076.00pt (-1.27%)	865.75pt (-1.93%)
달러-원 환율	**韓 10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480.80 원 (+1.6 원)	3.6700% (+4.2bp)	6,806.00pt (-0.26%)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KOSDAQ	KOSPI200 선물
개인	+2,961 억	+9,311 억	+1,574 억
외국인	-10,033 억	-4,305 억	+3,780 억
기관	+2,087 억	-5,119 억	-5,299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국내 증시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재차 높아지며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휴전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폐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바논이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별개의 분쟁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여전히 중동 지역 불안이 지속되면서 증시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전일 급락했던 WTI 유가는 약 3% 반등했습니다. 이날 KOSPI는 1.61%, KOSDAQ은 1.27% 내렸습니다. 금일 KOSPI 거래대금은 약 29.4조원, KOSDAQ은 약 9.8조원을 기록했습니다.(KRX 기준)
- 외국인은 KOSPI를 1조원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KOSPI에서 화학과 금속 업종을 매수했고, 전기/전자와 운송장비/부품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KOSPI를 2천억원 가량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전기/전자와 화학 업종을 매수했고, 운송장비/부품과 IT 서비스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해외 실적 성장 기대에 K-뷰티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소비 증가에 따라 유통주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리튬 가격 상승세와 ESS 관심 증가로 2차전지주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전일 큰 폭으로 반등했던 반도체, 자동차, 전력기기, 증권주가 하락했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에이피알(+8.94%), 신세계(+5.00%), LG에너지솔루션(+3.69%)이 올랐고, 현대차(-3.64%), SK하이닉스(-3.39%), 삼성전자(-3.09%)가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